

신상품 개발에 얹힌 숨은 이야기(시리즈-4)

- 꾸준한 노력으로 결속방적사를 상품화 -

결속방적법은 슬라이버를 드래프트한 후, 회전하는 분사류를 이용함으로써 실의 중심부에서는 꼬임이 없고, 가장자리 섬유가 그 둘레를 둘러싼 구조의 실을 만드는 방법이다. 일본의 경우 결속방적사가 면방업계의 관심을 끌게 되자, 대부분의 면방회사들이 상품화를 시도하였으나 그 구조가 일반적인 실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그에 따른 독특한 실의 표면감이 일본의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품화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다이이찌보(第一紡)만은 상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결속방적사를 개발하여 시장을 개척해 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기술자들의 고생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웃도는 것이었다.

다이이찌보는 10여대의 결속방적기를 갖고 있어 일본 내에서는 제일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1998년에 다이이찌보만이 한 대 도입한 실의 잔털을 눕혀주는 기능의 방적기로 조건을 달리 하여 결속방적사를 수없이 시험 방적하였다. 원면뿐만 아니라 제직, 염가공에 이르기까지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잔털이 거의 없는 깨끗한 천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 천을 “클리어·코트(Clear-cot)”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후에도 실의 품질은 안정되지 않아 방적, 편성 및 봉제의 전공정에 걸쳐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실이 만들어지면 바로 천으로 편성하여 품질을 확인하는 등의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렇게 하여 겨우 납기를 지키며 살얼음 위를 걷는 초조함을 맛보았던 나날이 지금은 그리운 추억이 되었다고 한다. 작년 10월에 결속방적기를 한 대 증설하여 2대로 대

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2002년) 봄·여름철에 “클리어·코트”의 수요는 크게 늘어, 2대를 풀(full)로 가동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